

	해외파견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 (2차 보고서)
소속학과	중국학과
성명	김여원
파견국가 및 대학	중국 산둥대학
파견기간	2026년 7월 13일 ~2026년 8월 8일(2학년 하계방학)
출국일자/귀국일자	출국: 2026.07.13. 귀국: 2026.08.08
보고서 제출일자	2026.08.16.

※ 보고서를 읽는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사진 첨부 권장

1. 출국 전

비자	비자발급 절차: 무비자
	구비서류: x
	발급비용: x
	현지 비자변경 또는 연장: x
항공권	구입 시기: 출국 3주 전
	구입 방법: 제주항공어플을 통한 온라인 구매
	구입 비용: 300,000원 (인천-웨이하이 왕복)
	경유 포함 이동 경로: 경유 없음
보험	상품명 및 가입비용: KB해외여행보험 (약 4만원 4주)
	현지대학 가입 보험: X
기타 비용	- 출국 전 환전 및 카드발급 등: - 출국 전 3800RMB 환전, 트래블월렛에 계좌 연결 후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록
이동 및 픽업	- 교류대학 픽업여부 - 웨이하이공항에서 픽업 - 도착시간에 맞춰 조교님 두 분 대기
	픽업비용: 픽업비용 없음
기타 사항	

2. 도착 후 정착과정

오리엔테이션	• 실시여부 및 내용 - 외국인 유학생 전체 오리엔테이션 있음. 학교 규정에 대한 설명있음 - 예정되어 있는 여러 활동 및 수업은 반마다 다르기에 조교님께서 따로 설명해주심		
현지대학 소속학과	• X		
현지대학 담당자	• 교류학생 담당자: 각 반마다 있는 조교님		
도우미(Buddy)	• 도우미 학생 배정여부 및 활동내용 - 별적으로 배정되지 않음. 반마다 조교님이 도와주심		
현지대학 국제처 지원사항	• 지원사항 - X		
숙소	• 기숙사: (2)인실	• 홈스테이: ()인실	• 외부숙소: ()인실
	• 남녀구분: 있음 ☐ 없음 ☒	• 취사가능여부: 가능 ☐ 불가능 ☒	
	• 비용: 140RMB / 1일 • 신청방법: x • 관리비 및 공과금: x • 인터넷: 무료로 호텔 와이파이 사용 가능 • 비용납부 방법: 현금으로 숙소 프론트에 제출		
	• 숙소시설: - 문화원에서 2인 1실 생활 - 방에 기본적으로 행거, 책상1개, 침대, TV 구비 - 방마다 화장실 겸 욕실이 있음 - 매일 청소해주시고 침구교체는 매주 월요일마다 진행 - 숙소 전체에 세탁기와 건조기 두대 - 2층에 공용냉동고와 전자레인지 있음 - 냉장고는 프론트에 따로 문의		
	• 통학수단 및 소요시간: - 어학수업을 듣는 건물까지 도보로 15분 - 학교 내 비치된 띠엔동을 타고 이동 (대략 3분 소요)		
	• 방학기간 숙소이용 및 비용: 26박 총 3500RMB		
기타 사항			

3. 학사 및 캠퍼스생활

학사	- 이수 교과목 및 이수학점 - 단기어학연수 총 3학점
	- 최소 신청학점 및 최대 신청학점 3학점
	분반고사: 한국에서 산동대 홈페이지에 정보입력할 때 온라인으로 실시. 그러나 배정된 반은 수업을 들어본 후 변경 가능
	- 수강신청 방법 - X
	- 시험기간 및 유형 - 시험없음
캠퍼스 생활	- 교환학생 대상 별도 프로그램 및 혜택 - X
	동아리 활동:X
	주요행사: x
	의료시설: 택시를 타고 5~10분거리
	방학생활 및 여행경험: 주말에 연태, 칭다오 방문
	- 생활비 - 하루에 식비 대략 40~50 RMB 4주간 모든 비용 총합 대략 150만원 (연수비, 기숙사비 제외)
기타 사항	

4. 교육과정 및 교수진 세부 소개

월~금 매일 아침 9시에 수업을 시작합니다. 저희반에는 한국인보다 러시아인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6반부터 15반까지 총 10개의 반으로 구성되어있고, 6-9 초급 10-12 중급 13-15 고급 이렇게 반이 나뉩니다. 사전에 응시한 레벨테스트를 기준으로 분반이 정해지고 1,2일차에 다른 반 수업을 들어보고 수준에 맞는 반으로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저는 12반을 선택했고, 받은 교재를 중심으로 본문을 공부하고 문법, 회화 수업을 합니다. 수업은 중국선생님께서 전부 중국어로 진행하셨습니다. 저희반 선생님께서는 게임을 종종 준비오셔서 재밌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수업 중간중간 개인한테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본문 읽기, 문장만들기 등 학생들이 직접 말해볼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2명씩 짝지어서 서로 대화문을 읽고 손을들어 발표를 하는 방식의 수업을 하였습니다. 발표자가 없을경우 선생님께서 지명을 하시는데 하나도 못하더라도 선생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영상이나 사진같은 시각자료를 많이 준비해주셔서 어려움 없이 이해가 가능했습니다.

오전 중국어 수업이 끝나면 주에 2,3회정도 문화수업이 있습니다. 문화수업은 1시반-3시 또는 3시반-5시에 실시되며 태극권, 종이공예, 다도, 중국가야금, 영화관람, 중국화, 서예 등 아주 다양한 중국의 문화에 대해 배웁니다. 지리수업 제외 모두 직접 해보는 참여형 수업이라 재미있게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5. 파견대학 및 대학생활 세부 소개

- 산동대학 및 부대시설 소개

저희가 묵은 문화원 기숙사는 산동대 학생들이 이용하는 기숙사는 아니고 외부 호텔같은 느낌의 기숙사였습니다. 연수온 학생들 제외는 여행객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깔끔하고 매일 청소와 생수 제공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책상과 의자가 하나밖에 없는 것이 정말 불편했습니다. 냉장고가 없어 프론트에 문의해 넣어달라고 부탁해야하는점, 세탁기가 두대밖에 없어서 사람들 세탁 끝날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야하는점이 불편하였습니다. 저희방은 작은 행거가 따로 있었는데 없는 방도 있어 옷을 걸어들 만한 장소도 상당히 부족하였습니다. 제일 힘들었던게 빨래와 건조였고 저희는 학교사람들끼리 건조대 하나를 돌아가면서 사용하며 방 안에서 건조를 하였습니다.

기숙사 바로 옆쪽에 택배 받는 곳이 있어서 편하게 택배 수령이 가능하였습니다. 기숙사 바로 앞에 식당들과 마트, 카페가 있어 편하게 생활이 가능하였습니다. 또한 제일 좋았던 점은 출구 정말 바로 앞쪽에 야시장이 매일 크게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식사가 따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기에 매 식사를 알아서 사먹었어야했는데 야시장이 정말 딱 좋았습니다. 식당을 찾아볼 필요도 없이 저녁 해결이 가능하였습니다. 교통수단은 주로 택시를 많이 이용했고 가까운 거리는 뽈덴동을 타고 이동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버스는 많이 없고 배차간격이 매우 크고 편하지가 않았기에 한 번만 이용하였습니다.

매일 중국어 수업을 듣는 건물은 꽤나 위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운 여름 등하교가 꽤나 힘들었습니다. 저희 반은 6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을 이용해야했습니다. 2주차부터는 뽈덴동을 타고 이동해 그나마 편하게 등교를 하였지만 걸어서 건물까지 갔다가 또 계단 6층을 오르는 것은 정말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문화 수업은 항상 같은 건물에서 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주로 하는 건물의 위치도 꽤나 멀었습니다. 기숙사에서 걸어서 15분정도 소요됩니다. 다행히 그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있어 편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학식당은 크게 세곳이 있습니다. 학식당 건물로 들어가면 여러 메뉴를 팔고있고, 학생중에 돈을 충전해 결제하였습니다. 밥 외에도 샐러드 가게도 있고, 햄버거 가게도 있고 메뉴는 정말 다양합니다. 한끼에 8-15위안 정도로 저렴하게 한끼 식사가 가능합니다 학생중에 돈 충전은 50위안, 100위안 단위로만 충전이 가능하고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환불이 불가능 한 구조입니다. 학생중에 충전을 하지않고 알리나 위챗페이로도 결제가 가능하지만 20% 가격이 높습니다. 마지막 1주일엔 세곳중에 한 곳이 문을 닫아 이용이 불가능하였습니다. 학식당 옆에 루이

싱, 미쉐빙청 등 프랜차이즈 카페도 바로 있어 편하게 이용가능하였습니다. 기숙사 가는 길에 마트도 있습니다. 마트에서는 식품은 물론이고 아주많은 생필품도 판매합니다. 또 산동대 굿즈들도 있어서 기념품을 사기에도 좋았습니다.

- 교우관계

저희반에는 20명 정도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친구들과 매일아침 인사를 나누고 가끔 대화를 하며 친밀감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 친구들과는 주로 중국어로 소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중국인 친구를 사귄 기회는 아예없다시피했습니다. 조교님이나 선생님, 호텔프론트분들 제외하고는 학교에서 중국인과 교류할 기회가 아예없었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저희 조교님께서는 한국어를 정말 잘 하셔서 재밌게 대화를 나누고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조교님과 선생님 모두 저희와 나이 차이가 크지 않은 점이 좋았으며 저희반 한국인들과 조교님, 선생님 이렇게해서 밥도 먹으러 가고 대화도 많이 나눴습니다.

6. 문화적 충격

에어컨을 잘 틀지 않는다는 점이 충격이었고, 힘들었습니다. 한여름에 간 파견이었기에 날이 매우 더웠는데 식당이나 큰 물을 가도 에어컨이 약해 더웠습니다. 학식당도 에어컨을 틀긴 하나 넓은곳에 에어컨이 조금밖에 없어 땀을 흘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그런지 저녁에는 가게 밖에서 의자와 테이블을 펼쳐두고 먹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어디서나 담배를 핀다는 점이 충격이었습니다. 정말 담배에 제한이 없습니다. 길거리는 너무 당연하고 가게 안에서도 흡연을 하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7. 프로그램에 대하여 하고 싶은 말 및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모든 순간 순간이 행복하고 그리운 추억이 됩니다. 중국 여행을 갔을 때는 음식도 맞지않고 힘든 점이 많아 4주라는 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저는 정말 모든게 좋았고 행복하였습니다. 한국과 다른 문화에 왜그러지 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다 좋게 생각하고 적응하는게 좋습니다. 새로운 것들도 꺼려하기보다는 경험해보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멀리 놀러나가는 것도 좋지만 학교근처에서 보낸 소소한 것들도 큰 추억이 됩니다. 저는 친구와 밤산책을 자주하였는데 그게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학교사람들과 많이 놀러다니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환경도 너무 좋았지만 저는 같이 놀았던 학교 사람들이 좋아서 모든게 더 좋게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혼자라면 안 했을 것들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용기가 나고 해보고싶어집니다. 소수도 물론 좋은점이 있겠지만 저는 다수에서 놀았던 게 정말 재미있고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개통을 하시는 것을 매우매우 추천드립니다! 번호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 꽤 많습니다. 저는 2주차에 개통을 하였는데 개통하고 위챗페이, 띠엔둥, 택배, 배달 등 너무나 편하게 이용이 가능하였습니다. 교내 띠엔둥은 중국 번호가 있어야만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한여름에 20분 걸어가는 대신 띠엔둥을타고 아주 편하게 등하교를 하여 삶의 질이 아주아주 높아졌습니다. 통신사에 여권을 들고가면 바로 개통이 가능하며 한달에 35위안 정도로 아주 저렴합니다.

8.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기록한 SNS 등 자료 링크

9. 사진



